이통사 해킹 수백만통 문자 전송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해킹 프로그램으로 이동통신사 서버에 무단 접속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T동호회 운영자 김모(20)씨, S동호회 운영자 조모(33)씨 등 인터넷 해킹 동호회 운영자와 회원 49명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5월~올해 7월 해커 동호회를 결성해 만든 13개 해킹 프로그램으로 국내 이동통신회사 3곳의 서버에 접근해 문자메시지 250만 건을 무료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버에 접근한 뒤 문자메시지 전송에 필요한 '쿠키'(cookie·접속자와 웹사이트 사이를 매개해 주는 텍스트 정보)의 값을 알아내는 수법으로 '웹투폰'(Web-to-Phone) 방식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서채원 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혜광)는 7일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입당과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서채원(45)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특히 지난 98년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데다 다선의원임에도 선거법을 어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원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앞으로 5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도 제한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선거 앞두고 1억 헌금 "유죄"

장흥군수 부인 징역 6월 집유 2년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준영)는 7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의 헌금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규 장흥군수 부인 김모(50)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 됨에 따라 김씨의 남편인 김인규 현 장흥군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헌금은 평소 해 온 헌금액의 100배인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시기 또한 지방선거를 4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므로 헌금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의 헌금을 받은 J교회 김모(46) 목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건설업체 사주 납치사건 광주 국제PJ파 연루 수사

남부경찰, 용의자 1명 체포·3명 추적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 사주 납치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피해자의 함구와 잠적으로 미궁에 빠졌던 이번 사건은 유력 용의자 검거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히 붙잡힌 용의자가 광주지역 폭력조직 국제 PJ파 중간 보스 J씨의 처남인 것으로 밝혀져 납치사건에 조직폭력배가 연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광주 N건설 사주 공모(47)씨 납치 사건〈본보 11월22일자 7면〉을 수사 중인 광주 남부경찰은 7일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모(36·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를 붙잡아 폭력 및 공동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와 함께 납치에 가담한 용의자 중 완도 출신 3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20분께 광주시 남구 백운동 국제호텔 사우나 안 탈의실에서 공씨를 납치해 폭행한 뒤 6시간 만에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인근에 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국제호텔 인근에서 납치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들과 잦은 통화를 했고 ▲납치 당시 공씨가 옮겨 탄 봉고 차량을 운전했으며 ▲공씨에게 입힌 운동복과 운동화를 북구 용봉지구의 한 가게에서 직접 구입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밤샘 조사를 벌였으나 이씨는 "차량을 운전한 것은 맞지만 납치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뒤 사건 당일 납치 현장인 국제호텔 인근 지역에서 수신·발신된 모든 휴대전화의 통화 내용 조회를 하고, 공씨 납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90여 대의 차량 번호를 추적해 용의차량을 확보했다.

한편 공씨는 지난 1998년 부도가 난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 라인건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부도 후 N건설·E건설을 세우며 재기 움직임을 보이다 지난달 21일 납치돼 6시간 만에 풀려났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공씨, 국제PJ파와 어떤 사이?

오랜 친분관계…최근 갈등설

'광주 N건설 사주 공모씨 납치 사건'에 폭력조직인 국제PJ파 중간 보스 J씨의 처남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씨와 J씨의 관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내 폭력전담 형사들은 공씨가 젊은 시절 국제 PJ파와 절친히 지냈고, 건설업을 하면서도 때때로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씨가 선배 입장에서 '후배들'을 가끔 돕기도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납치사건 발생 전 J씨가 공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무엇인가'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건설공사를 둘러싼 이권 다툼 ▲원한 등에 의한 납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또 신원이 파악된 3명의 가담자가 국제 PJ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J씨는 현재 서울 소재 미용기기 제조업체 대표 A(42)씨에게 다단계 판매망을 구축해주겠다며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한편 국제 PJ파는 1970년대 말 충장로 1가 소재 'PJ 커피숍'을 주무대로 활동한 광주·전남 최대 규모의 폭력조직이며, 현재 서울과 광주에 각각 30여 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보험사기단 30여 명이 7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조폭-병원 연계 '보험 사기' 의혹

광주 북부경찰 수사 확대 병원 35곳 대상 압수수색 방침

조직폭력배가 광주·전남 수십 곳의 병원과 연계, 보험사기극을 벌인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은 7일 "조직폭력배가 낀 보험사기단을 수사하던 중 서울과 광주·전남 병원 35곳이 이들과 연루된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입원 시간을 조작해주거나 ▲입원하지 않은 사람을 마치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 중에는 광주시내 대형 병원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험 사기극을 벌인 조직폭력배와 병원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확실하게 드러난 병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광주 폭력조직 국제PJ파 조직원 윤모(24·광주시 광산구)씨 등 3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달아난 이모(24)씨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윤씨 등은 지난해 1월2일 새벽 1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황룡강 다리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와 승용차에 각각 나눠탄 뒤 뒤범퍼를 들이받고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형사 합의금과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약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이번 보험사기 피의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해준 병원과 지난 5월 입건한 보험사기범 127명과 관련된 병원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630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파크레
062 367-9000

신문기사와 광고에 대한 불만
02-722-1282 www.ikpec.or.kr

금강산 음주운전 사고 면허취소 정당

쌍나팔

○…북한에서 음주운전을 해 사상자를 냈다가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면허취소는 가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7일 지난해 금강산에서 음주운전을 해 북한군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혀 벌점 130점을 받아 벌점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현대아산 협력업체 A사 직원 정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정씨는 '남한 사람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서 교통사고 등을 낸 경우 조사권은 북측, 처벌권은 남측에 있다'는 법무부 훈령에 따라 올해 7월 기소됐었다고. /연합뉴스